

민천주보

제2705호

2022년 1월 16일 | 연중 제2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2022 교구 새 사제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62,1-5

화답송 | 시편 96(95),1-2,7,21-3,7-8,9와 10,7ㄷ(◎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 ◎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 1코린 12,4-11

복음 환호송 |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2,1-11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옵니다.

금주의
독색
순교

종이타올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혼인식에 가본 적이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전 제가 소임을 맡은 남동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혼인한다 하여 예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혼인식에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 건물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오신 분들이 다 예뻐 보이고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싱글벙글 기분이 좋은,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 신부와 인사를 나누고 혼인 잔치에 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성껏 준비된 음식은 혼인 잔치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본당 외 사목을 하다 오랜만에 주일에 성당에 나가보면 마치 혼인 잔치에 온 것처럼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 잔치는 하느님 나라의 은총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인 잔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혼인 잔치는 그 자체로 기쁨이며 축복과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데, 이 흥겨운 잔치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혼인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던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영적인 혼인 잔치가 영원한 잔치라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혼인 잔치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마무리되지만 영적인 하느님의 혼인 잔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혼인 잔치를 누리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인 것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성모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삶은 고통이었지만 온전히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의탁하였기에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성모님과 함께 의탁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의지하며 자비의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연중 제2주일을 보내며 2022년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영원한 혼인 잔치를 마련해주신 주님께 마음을 향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손동훈 세례자 요한 신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분심과 메마름

지난주에 저희는 기도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 ‘분심’과 ‘메마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729항~2741항 참조)

우선, 분심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심은 요즘 나의 ‘현재 상태’(나의 요즘 이슈, 관심사, 매여 있는 부분 등)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기도 중 분심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면, 평소에 잘 감지될 수 없었던 마음 밑부분의 영역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심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없애려 너무 애쓰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드리는 편이 더 좋습니다. 즉 ‘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요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며 머무른다면, 어느새 이러한 분심들은 찾아들고 다시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기도할 때의 **메마름**과 **무미건조함**입니다.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늘 뜨거워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생각도 기억도 느낌도 의욕도 없고, 영적인 감흥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메마름’에는 아주 중요한 영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메마름은 우리에게, ‘기도는 감정 그 이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거울 때에는 누구나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었을 때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초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의 사랑이, 연애 때처럼 늘 뜨겁게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언젠가 식게 되지만, 이 순간부

터 부부는, 감정을 넘는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메마름은 우리에게, ‘기도는 선물 그 이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주님께 기도 안에서 선물(위로, 감격, 마음의 평화, 깨달음, 소원 성취 등)을 청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선물이 없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선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이렇게 보면, 마음의 메마름은 우리를 마음의 정화와 순수함으로 초대해 주는 은총의 초대 시간이 됩니다.(2740항)

글을 마치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권고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맛과 위로를 찾지 말고 오직 그것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대사 테레사 성녀)

“정말로 가치 있는 기도는, 메마를 때, 오로지 주님 사랑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사랑하고 이것을 오아시스보다 더 좋아할 때 비로소 하느님을 향한 길을 제대로 걷게 됩니다.”

“저는 성당에 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가요. ‘주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뿐이에요.’”(동료 사제와의 대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대사 테레사 성녀, 기도 시 「인내」)

송기철 이사악 신부 ·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영성지도

2022 사제·부제 서품식



부제서품식 | 1. 장엄강복 2. 부제서품식 단체사진
 사제서품식 | 3. 성인 호칭 기도 4-5. 안수와 사제 서품 기도 6. 손의 도유 7. 제의 착의 8. 평화의 인사 9. 장엄강복 10. 새 사제 강복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이번 사제·부제 서품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계자와 가족 등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cpbc가톨릭평화방송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7일(목) 교구 부제 서품식에서는 교구 신학생 7명이 부제로 수품되었다. 정신철 주교는 강론을 통해 “부제품이라는 직무를 받는 것에 대해 깊은 겸손함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 복음의 힘을 굳세고 힘차게 믿고 전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전달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8일(금) 교구 사제 서품식에서는 교구 8명, 수도회 2명의 부제가 사제로 수품되었다. 정신철 주교는 “순명 안에서 나오는 겸손함, 기도 안에서 나오는 절제와 용기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새 사제들을 격려했다. 이날 미사는 후보자 호명 및 선발, 사제로 뽑힌 이의 서약, 사제 순명 서약 성인 호칭 기도, 안수와 사제 서품 기도, 제의 착의, 손의 도유와 빵과 포도주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고, 새 사제들은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통해 낮은 자세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였다.



오세찬 | 스테파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누구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저의 삶과 신앙 안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주님의 빛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빛을 건널 수 있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전호준 | 스테파노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 역시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분 사랑에 기뻐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심 성의껏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고, 마침내 떨고 있는 양을 발견하면 따스하게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순간, 길 잃은 양이 느꼈을 뜨거운 행복과 짙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빛이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문이십니다.



윤석민 | 베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1코린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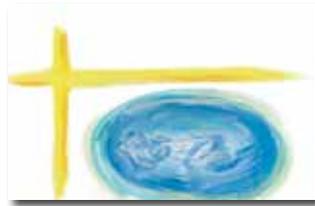
지난 9년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웃들을 통해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기다려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그리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심을 알기에 계속되는 이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강찬욱 | 요한세례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주님께로 다가갈수록 기쁨이면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뒤돌아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과 아픔은 크셨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며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저 역시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 마르코

“듣는 마음”(1열왕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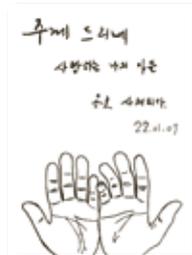
사제는 먼저 “뿔힌 사람”임을 잘 인식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듣는 마음”(1열왕 3,9)을 청하였듯이 저 역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기 위해 성령께 “지혜”의 은사를 청합니다.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에 제 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느님의 소리를, 아울러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겸손된 자세로 주님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김영인 | 사도요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처음에는 이 말씀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제 힘과 의지로만 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저를 부르기로 정해 놓으셨고, 저를 대체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사제 한 명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꼭 저를 필요로 하셨기에 사제직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저를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려 합니다.



정용호 | 대건안드레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8,35)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 하느님을 향한 짧고도 긴 여정의 끝에서 언젠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그날에 제가 겪은 모든 고난이나 유혹도 당신께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저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원근 | 미카엘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꾸시는 아버지 앞에 아이와 같이 머무르셨고,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가꾸시며 그리스도께 머무셨습니다. 열정에 가득 차 내 생각에 갇힐 때도, 세월이 흘러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바로 이곳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나무처럼 단출히, 나 자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세상을 초대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8명의 교구 새 사제들의 서품 성구와 상본을 소개합니다. 새 사제들이 참된 봉사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교리교사들

2021년 5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 안에 오래된 직무인 교리교사의 직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이천 년간 복음화의 역사는 교리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직접 뛰어든 수많은 남녀 평신도를 잇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능력 있고 헌신적인 많은 교리교사가 세상에 다양한 곳에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신앙의 전수와 성장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합니다.”(오래된 직무 3항)

우리는 이들을 “교리교사”라고 부릅니다.

“교리교사는 아이들에게 그 무엇이든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인데

교사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신공항 성당 25년차 근속 교리교사 홍명선 마리아나

하느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께서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리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사랑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지 최소 1년 이상 되는 성인 신자로서, 성별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교리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본당 수녀님이나 담당 사제, 교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는 교리교사 등록제를 통해 교리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양성하며, 근속 표창을 통해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힘써 주신 선생님들을 위해 매년 전교주일에 교리교사의 날을 개최하여 선생님들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3월 31일까지 교리교사 등록제를 완료해야 하며,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잘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동료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리교사 활동은 평신도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교구 알림

새 사제 인사 발령

2022.01.17

성명	가시는 곳
오세찬 스테파노	상1동 보좌
이규원 마르코	심곡본동 보좌
전호준 스테파노	간석4동 보좌
김영인 사도 요한	서운동 보좌
윤석민 베드로	역곡 보좌
정용호 대건 안드레아	선학동 보좌
강찬욱 요한 세례자	간석2동 보좌
이원근 미카엘	만수6동 보좌

교구 알림

교구 홍보 기자단 모집

취재를 통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교구 홍보기자단을 모집합니다.

- 자격요건: 만 70세 이하 남·여 신자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 접수: hongbo@caincheon.or.kr

후원 안내

‘하느님의 중’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내용	인원	금액	혜택
1. 추모의 벽	1인당	1,000,000	한 달에 한 번
2. 기도의 벽			10년간 미사 봉헌
3. 후원 1구좌	1인당	500,000	-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교구청 알림

◆ 제21기 선교사학교 모집

때: 3/3~6/16, 9/1~11/17 매주(목) 19:30
 곳: 보니파시오 대강당
 수강료: 20만원 / 마감: 2/13(주일)까지
 ☎ 032-762-9717

◆ 인천ME 제432차 주말

때: 1/21(금)~23(주일)
 곳: 강화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 516차 카나 혼인강좌

때: 2/20(주일) 13:30~18:30
 곳: 보니파시오 대강당
 인원: 45쌍
 ☎ 가정사목부 032-762-8888

교육 | 피정

◆ 낙태 후 화해 피정

때: 2/4(금)~6(주일)
 곳: 명상의 집
 비용: 무료
 ☎ 착한목자 수녀회 010-4120-1796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2/25~28, 3/11~14, 25~28, 4/8~11
 곳: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 글라라 010-9363-7784

미사 | 행사

◆ 1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새 사제 미사)

때: 1/18(화) 14:00
 곳: 보니파시오 대강당, 도화동 성당

◆ 성지개발 1월 후원회 미사

때: 1/20(목) 15:00
 곳: 답동 사회사목센터 4층 401호(강당)
 ☎ 032-765-6916

◆ 이수일 제르바시오 신부 선종 6주기 추모 미사

때: 1/25(화) 10:00 연도, 11:00 미사
 곳: 백석 성직자 묘지 ☎ 010-6310-9843

모집 | 일반

◆ 교구 우리농 신입직원 모집

분야: 우리농 활동 및 사무행정
 형태: 1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조건: 1종 운전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inwoorinong@hanmail.net
 마감: 1/27(목) 이후 면접
 ☎ 032-766-0565

◆ 만수1동 성당 사무장 및 사무원 모집

자격: 회계, 전산, 엑셀가능자(유경험자 우대)
 서류: 교적사본, 주민신부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령: 사무장(만 65세 이하)
 마감: 1/19(수) 17:00
 ☎ 032-464-0888

◆ 송내1동 성당 관리장 및 식복사 모집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 032-612-0309

◆ 용현5동 성당 관리장 모집

자격: 1종 보통면허, 소방관련 경험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 032-884-3834~5

◆ 송도 성 김대건 성당 사무원 모집

세례 받은지 3년 이상(파트타임 가능)
 사무·행정·PC활용(한글, 엑셀) 가능자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방문 제출
 ☎ 032-830-9000

◆ 교구 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성가 봉사 가능한 남, 여
 때: 매주(월) 20:00
 곳: 사회사목센터 B1
 ☎ 010-5392-0280

◆ 은행동 성당 교중미사 유급 자취자 모집

지휘 및 연습: (주일) 11:00 미사 전후
 자격: 전공자, 성실하고 밝은 사람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및 문의: ehd20101024@gmail.com
 접수 후 면접: 개별고지, 봉사료 안내 등
 마감: ~채용시까지

◆ 강화 꽃동네 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요양보호사, 조리원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 010-3040-7518

◆ 천사의집 노인요양원 종사자 채용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채용
 ☎ 032-435-9257

◆ (재)전진상의원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모집

3교대 호스피스 병동간호사 및 나이트 전담 간호사 모집
 ☎ 02-802-9311, 02-894-9312

◆ 서울성심간병인회 남·여 간병사 상시 모집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근무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 1522-9415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기간: 3월~12월
 혜택: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02-828-3600

◆ 성심중학교(야간) 신입생 및 교사 모집

22학년도 신입생 37기 30명
 (2년제, 학비 무료, 학습교재 제공)
 교사(자원봉사): 한문, 국사
 곳: 부평4동 성당 교육관
 ☎ 교장 010-7335-7657

◆ 한길고등학교(야간) 학생 및 교사 초빙

“만학의 꿈을 함께 일궈요”(연령 제한 없음)
 신입생 10명 모집
 (2년제 과정, 학비와 교재 모두 무료)
 미술 교사 1명 초빙
 곳: 주안5동 성당
 ☎ 교감 010-8348-0998

◆ 종교수어 기초반

일정: 1/19(수)부터 주 2회(수, 금) 10:00 [총 16회]
 곳: 청연 성당
 수강료: 6만원 ☎ 032-832-2361

◆ 도미니코 재속회 회원 모집

모임: 매월 셋째 주(주일)
 만 60세 이하 ☎ 010-9050-8308

◆ 바오로딸 서원 위치 안내

(월~금) 10:00~18:00
 (토) 10:00~17:00(주일, 공휴일 휴무)
 곳: 인천시 동구 재능로 5
 (인천교구청 정문 아래, 구, 박문여고 앞)
 -신앙서적, 음반, DVD, 성물 등 판매
 ☎ 032-761-5830

순례 | 기타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있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3/6~8, 17~19, 26~28, 30~4/1, 4~6, 10~12
 ☎ 02-773-1455, 064-796-4182

◆ 당일 지방 성지순례, 제주 3박 4일 성지순례

매주 출발 6만원 / 35만원
 시청역 2번 출구 / 김포공항 출발
 ☎ 010-4239-1929

◆ 국내 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일/4일]
 1/24~26, 2/4~6, 7~10
 ·한국성지 167완주(수원, 청주교구) [4일]: 2/21~24
 ☎ 010-8650-9690

성소모임

◆ 예수회

때: 상시
 곳: 예수회 한국관구 성소실
 문의: vocation.jesuit.kr, vocation.sj@gmail.com